



박태욱

항토사연구가·소설가

동천 하구는 문현동의 끝단이다. 우암동에 시작되면서 미55보급창의 축대 끝을 마주보고 있다. 이곳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 소형발동선이 운항됐다. 아이들은 삼판 끝에 걸터앉아 낚시줄을 드리우고 했는데, 간혹 팔뚝만한 민물장어가 잡히기도 했다. 꼬시래기(문저리)는 덤으로 낚였다. 그보다 몇 년 앞선 어느 청명한 날엔 고래가 출현하기도 했다. 거기서 상류로 조금 올라오면 30여 척의 조개잡이 배들이 정박하던 허름한 삼판이 있었다. 그 옆엔 수상가옥도 대어섯 채 있었다. 큰 비가 내린 뒤 이곳 주변엔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를 만 한 것들을 건져내곤 했다. 과거 대응으로 고무마 빼빼기(말랭이)와 강냉이도 있었다. 농협바이오 사료공장 앞은 무더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받던 곳이었다. 햇살이

동천 하구의 오래된 앨범을 펼쳐며

아무리 따가워도 넓게 드리워진 사료공장 그늘에 언제나 시원한 해풍이 불었다. 그 앞을 화물열차가 지나가면 철길은 한동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곤 했다. 화물열차에는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생산품이 실려 있었다. 동명목재를 위시해서 연합철강(유니온스틸), 한국주철관, 부산파이프, 성창기업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남구에 포진해 있을 때였다. 이들 기업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십 대의 통근버스 행렬도 장관이었다.

동천 하구에서 먹 감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가 저물 무렵이었다. 이때는 물빛이 거무스름했고, 약간 구린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썰물 때 드러난 바닷은 고운 모래 등지 같은 갯벌이 아니라 질퍽한 개흙으로 변한 것 같았다. 조개잡이 배들은 7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앞바다로 나갔지만, 동천 하구는 점점 더 혼탁한 낯빛을 띠었다. 아이들은 더운 날에도 더 이상 먹을 감지 않았다. 그때를 찾아보니 벌써 40여 년 전의 일이다. 꽤 많은 세월이 흘렀건만 동천 물길은 악취를 풍기는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다. 옛날엔 물길에 맑아 '풍만강' 혹은 '보만강'으로 불렸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그 명성을 되찾을지 의문이다.

마침 부산시에서 동천 재생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하상퇴적물 준설공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동천 악취가 사라지고 백탁현상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옛날의 맑은 물길에 다시 흐른다면, 동천 하구의 이야기도 새로운 유형의 문화콘텐츠로 손색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동천 끝단에서부터 제



1960년대 동천의 풍경.

물장구치며 조개 잡던 하천…재생사업 기대감

나룻배 띄우고 갈매깃 조성해 문화콘텐츠 발전

방을 따라 문현금융단지까지 갈매깃을 만들고 거룻배를 띄우는 거다. 이 코스는 꽤 길다. 노를 저어가야 하니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간지점에 거룻배가 닿는 삼판을 두고, 그곳에 커피향이 풍기는 개천카페를 여는 것이다. 특정한 날에는 개인의 소원을 담거나 등불을 밝힌 종이배를 띄우는 이벤트를 하기도 좋으리라. 화물 열차가 다니던 철길도 재현해 본다. 레일 위에는 사람의 근력으로 움직이는 이륜차 단만 있으면 될 터. 이 역시 거룻배의 코스와 같다. 여기에 덧붙여, 중국의 진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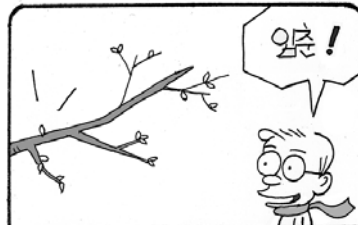
제가 파견한 '불로초 사절단'이 잠시 머물렀다는 강선대(배정고등학교 뒷산)도 연결하고, 또 그 동선을 따라 임진왜란 때 왜군에 맞섰던 진터(장지터)까지 연결해 본다.

이제 남은 일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화폭은 배정고등학교 밑의 도로변에 펼쳐져 있다. 깎아지른 경사면을 거대한 축대가 받치고 있는 이곳은 한때 판자집들이 아슬아슬하게 막히듯 붙어있었다. 1978년 철거된 이후 회색 축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

오고 있다. 도로 중간에 거대한 교각엔 소소한 예피소드로 채우면 될 것이다. 동천 하구의 이야기를 펼쳐는 공간으로 이만한 곳도 없지 싶다.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구만 늘어놓은 듯하다. 전문가들은 동천 재생을 통해 동천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시 차원의 문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황금라인이 2030년쯤엔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어쩌면 그때쯤 고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동천 하구의 오래된 앨범을 덮는다.



<241>



쉽게 풀어쓴 생활법칙

상속포기, 유불리 신중히 따져야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들이 상속인이 된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문제는 적격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을 때이다. 빚이 더 많다는 예기로 재산상속에는 부모 빚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아예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도 빚보다 적극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어 포기가 망설여질 경우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빚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은 부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겨 상속 관련 채무를 증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뒤에 불꽃 나타난 경우 3개월 내 한정승인신고로 구제받을 길도 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부모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으로 봐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을 하기도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만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안될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일단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는 신중히 해야 한다.

종전에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들은 돌아가

신 부모님의 금융자료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토지 소유를 알기 위해 지적부서 등 각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구청이나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상속재산확인과 관련한 통합신청을 하면 7~20일 이내 각종 정보를 일거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정부 3.0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개시인데 그 결과를 집에 앉아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아주 편리한 제도이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빚과 관련되어 서가 아니라, 상속인들이 부모 생전에 서로 좋은 마음으로 미리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각자 상속포기를 한 후에도 간혹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부모 생전에 맺은 상속재산과 관련한 상호간의 다짐이나 각서는 그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재산포기란 부모 사후에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있기 미리 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김성수 법무사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봄 한 그릇

입춘이 지나더니 성큼 봄이 온 것 같다. 봄 겨울은 뒤늦은 한파 때문인지 봄이 더욱 반갑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날 죽을 사려 난 적이 있다. 감기가 심해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어깨를 움츠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문을 했다. 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줄다는 말을 가게 주인이 듣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다.

차 한 잔의 온기가 언 몸을 녹여 마음을 간지럽게 했다. 마침내 주문한 죽이 나오고 계산을 마치고 주인이 품에 안고 가라고 했다. 죽이 식는 동안은 추운지 모를 거라는 것이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죽을 품에 안았다.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죽이 식지 않아서 조금도 따뜻하고, 손도 따뜻했다. 몸담만은 누군가의 말을 어린이처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서 참 따뜻한 하루였다. 그 죽을 맛있게 먹고 감기도 나았다. 올 겨울이 지나도 그 날의 기억이 한동안은 내 안에 맴돌 것 같다.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 언제 추웠냐는 듯 풍광 열었던 몸이 풀릴 것이다. 더불어 어려운 경기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렸으면 좋겠다. 따뜻한 죽 한 그릇처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북돋아줄 음식 한 그릇 먹을 여유가 있다면 더욱 기대할 만한 계절이 될 것이다.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왔으면 좋겠다.

윤호동 (이진희)

독자 에세이

100점 짜리 남구 기후변화체험교육

“엄마, 제가 나중에 회사 다니면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다닐래요.” 얼마 전 남구에서 실시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기후변화체험교육을 다녀 온 우리 아이의 각오다.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구청에서 마련한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과 교육적 효과를 준 것 같아 내내 흐뭇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살아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었다더라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대기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거라는 생각이 해

본다. 필자는 3년 전 우연히 독일에 갈 일이 있었는데 당시 하이델베르크 역 앞에서 운동장 크기의 자전거 주차장을 보고 일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물론 그 큰 공간에 빼곡하게 자전거가 주차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고 역시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를 안내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런던, 파리, 베를린, 코펜하겐, 암스테르담도 자전거 친화 도시로 매우 유명하며 소개가 해졌고

자전거는 시민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한다. 듣는 내내 공감하는 바가 아주 컸다.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효율적이다. 국내의 경우 승용차는 주차장의 16배, 버스의 3배 이상 면적을 소비한다고 한다. 더구나 승용차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부 귀중한 석유 아닌가.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면 석유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낭비도 줄이며 석유 수입에 따른 달러 유출도 줄일 수 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강명순 (대연동)

산따라 물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6. 3.>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약천산악회	3/16(수)	구례 오산	010-4655-4370
	청암산악회	3/9(수)	사천 각산	010-6778-3192
	연포산악회	3/13(일)	남해 망운산	010-3832-5971
	한울림산악회	3/13(일)	남해 보리암	010-9328-6091
	산오름회	3/6(일)	통영 미륵산 신산제	010-7223-2277
용호동	신선산악회	3/20(일)	통영 벽방산 신산제	010-6520-0167
	여남산악회	3/13(일)	거제도 국사봉 옥녀봉	010-4553-6615
	용신산악회	3/13(일)	전남 해남 두륜산	010-4657-7051
	용호산악회	3/27(일)	전라남도 완도 상항봉	010-2593-0361
	청산산악회	3/6(일)	거창 우두산	011-864-0442
용당동	환경산악회	3/6(일)	형제봉 (화동)	010-3575-3448
	해월산악회	3/20(일)	전남 광양 쪽바리 매화마을	010-3580-7558
	여명산악회	3/6(일)	거제도 노자산	010-3554-4392
	문화산악회	3/27(일)	통영 미륵산	016-564-8882
	김만동	글로벌산악회	3/20(일)	사천 각산
우암동	우남산악회	3/20(일)	여수 영취산	010-7520-6666
	우일산악회	3/6(일)	경북 군이 아미산	010-3557-2847
문현동	문사산악회	3/13(일)	지리산 노고단	051-631-9001
	문현2동산악회	3/13(일)	남해 보리암	010-3178-3065
	원부리산악회	3/20(일)	진안 구룡산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이렇게 예방하세요

소아의 두뇌가 성장하지 못하는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최근 2개월 이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을 할 경우 아래 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여행 전 준비사항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 확인.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해외여행질병정보

해빙기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겨울철 일었던 지반이 날씨가 풀리면서 지반동결과 융해현상 반복으로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취약시설에서 재난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빙기(2~3월) 중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남구에서는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여러분도 집 주변의 노후건축물이나 축대, 옹벽, 절개지에 균열이나 이상징후가 없는지 평소 꼼꼼히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발견시에는 구청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남구청 안전도시과(☎607-4119)

센터(travelinfo.cdc.go.kr)
-모기 예방법 숙지.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 및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 착용 준비.

■여행 도중 주의사항
-방충망이나 모기장 있고 냉방 잘 되는 숙소 선택.
-외와 외출시 긴팔 상의, 긴바지, 밝은 색 의류 착용.
-모기 기피제는 갈때 바를 것.
■여행 후 주의사항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발생시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알릴 것.
-증상 없어도 1달간 헌혈 금지.
-귀국 후 1달간 콘돔 사용.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기간 : 2015. 7. 1. ~ 12. 31.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2015. 12. 31. 기준)
○납부기간 : 2016. 3. 16 ~ 3. 31.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문의 처 : 남구 환경위생과 ☎607-4385, 4381
※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6. 2. 23.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남구장애인복지관	대연동	사회복지사	1명	02. 23 ~ 03. 08	월 200만원	051-626-6990
㈜롯데건설	대연동	건설노무직	4명	02. 22 ~ 03. 31	일급 75,000원	051-633-9905
부산예술대학	대연동	행정사무원	1명	02. 22 ~ 04. 19	월 150만원	051-628-3993
부산고려병원	대연동	조리사	1명	02. 22 ~ 04. 21	월 200만원	051-930-3900
㈜디에스이	용당동	무역사무원	2명	02. 19 ~ 04. 18	월 180만원	051-266-8811
㈜다다종합건설	대연동	건축캐드원	1명	02. 19 ~ 03. 04	연봉 2,000만원	051-903-7751
간남씨앤에스	감만동	철강생산직	5명	02. 19 ~ 03. 01	연봉 3,000만원	051-640-5993
㈜세광에스씨	감만동	경비원	1명	02. 18 ~ 04. 17	월 180만원	051-640-5156
세영식품	대연동	총무사무원	1명	02. 18 ~ 03. 31	연봉 2,000만원	070-7124-4630
에이스자동차시트	대연동	재봉사	1명	02. 18 ~ 03. 03	월 150만원	051-621-1449
PPG코리아	용당동	생산직	0명	02. 18 ~ 02. 29	회사내규	051-620-8202
해오름노인복지센터	문현동	요양보호사	1명	02. 19 ~ 03. 18	시급 7,125원	051-978-8686
윌리스요양병원	대연동	병원행정	1명	02. 19 ~ 04. 18	월 300만원	051-638-7574
유림종합관리	감만동	경비원	3명	02. 18 ~ 04. 17	월 102만원	051-334-5902
롯데정보통신	용호동	통신설비 유지보수원	1명	02. 18 ~ 04. 17	월 195만원	042-840-5779
홍진물류	용당동	경리사무원	1명	02. 18 ~ 03. 03	월 130만원	051-626-2616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 ~ 8 Fax. 607-4349

남구 문화캘린더

공연명	공연날짜	공연시간	공연장소 및 문의
5개 단체 수석작품 전시	3월24일(목) ~ 27일(일)	홈페이지 참조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627-5735
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3월12일(토) ~ 18일(금)	주중 19:30 주말 17: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607-3147
2016년 박현주 Wings Dance Company 발레공연	3월26일(토)	1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홈페이지 참조)
오페라 아리아의 밤	3월21일(월)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10-8254-6178
캔디 덜퍼 Candy Duffer 최초 단독 내한공연-부산	3월27일(일)	1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홈페이지 참조)
모차르테를 피아노 클래스 연주회	3월19일(토)	1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010-5675-7770
뛰어난 재주와 어머니의 마음, 원소이! 특별전	2월22일(화) ~ 3월27일(일)	9:00 ~ 20:00 토요일 16:00, 19:00 일요일, 공휴일 18:00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서로비 (홈페이지 참조)
제117회 MBC목요일연회 <오카리나 앙상블의 향연>	3월24일(목)	7:00 ~ 22: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홈페이지 참조)
사랑을 마시다-부산	2015년12월12일 ~ 오픈런 (매주목요일 밤)	평일 20:00 토요일 16:00, 19:00 일요일, 공휴일 18:00	행복을 주는 소극장 1800-9727
시립극단 제55회 정기공연 장막회극 '영월행일기' (寧越行日記)	3월12일(토) ~ 3월18일(금)	주중 19:30 주말 17: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티켓문의 607-3107, 공연문의 607-3147
버튼 색소폰과 함께하는 가수 한승기 콘서트	3월25일(금)	19: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1566-9557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필자 <비밀댓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